

1. 서론

1. 연구목적

금융환경의 다변화로 인하여 금융업권간 경계에 대한 의미가 점차 무색해지고 있으며 무한 경쟁구도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법제 및 조직의 변화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거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융관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겸업화에 대한 규제의 정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에서 금융법률의 통합 노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다각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IMF이후 나타난 금융소비자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보험 및 은행의 발전이 가속화되었으며,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본시장발전이 요구되어 자본시장통합법²⁾이 제정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완전한 통합법률의 형태는 갖추지 못하였으나 금융겸업화의 제도적 기초가 되는 금융법률의 통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험과 은행을 제외한 자본시장관련 금융업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통합 금융법률의 체계를 가졌다. 그러나 업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보험과 은행을 제외한 부분통합법률인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보험과 은행상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적용제외를 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는 보험과 은행상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업규제대상과 상품규제대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규제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필요한 조치였다.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제도의 변화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시행일 2009.2.4]을 말한다. 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한다.

더불어 금융상품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사전적 예측성에 의한 기존 금융상품의 열거주의 분류체계로는 신상품이 출현할 때마다 추가 열거해야 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또한 동일기능의 금융상품을 서로 다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제차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있어 금융상품의 분류 및 규제체계를 포괄주의와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행 금융산업에서의 겸업화·통합화 추세에 대응하는 부분통합금융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국내 금융법률의 규제대상을 결정하는 해당 금융상품의 정의와 분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주요외국의 금융법률 통합사례와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살펴본 후, 합리적인 보험상품³⁾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금융상품의 정의 및 규제에 관한 국내외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우선 국내의 금융관련 법규제의 전체적인 체계와 변화 추이 속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법률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자본시장의 변화와 각 금융권의 영향에 대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고 자본시장통합법의 금융투자상품의 제정의 의미와 이를 통한 보험, 은행, 증권업의 상호 복합 관계에 대한 의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제시를 하였으며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를 위하여 금융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외국이 금융상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국내 금융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정의 및 해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상

3) 우리나라 보험계약법이나 해외법률에서 '보험계약 또는 insurance contract'로 정의하고 있으나, 보험계약법의 보험계약과는 차별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하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험상품'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품에 대한 정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또한 금융상품을 정의하기 위하여 금융업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금융업권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사례연구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I 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 II 장에서는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기존에 실시된 기존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금융상품의 정의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함과 동시에 국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보험관련 법령 뿐 아니라 은행법령에서의 은행상품 및 은행업의 정의 및 규제체계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규제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IV 장에서는 현행 금융상품 정의 및 업무범위와 규제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에 대한 주요이슈를 통하여 논란의 핵심주제 또는 금융상품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하였다. 제 V 장에서 주요외국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금융기관별 업무범위에 대한 분류 및 규제체계에 대하여 조사하고 금융법률의 통합에 대한 진전 현황도 조사하였다. 제 VI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금융상품의 정의와 규제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상품 정의 및 규제체계와 보험상품의 정의 및 업무범위 등의 규제체계를 보험업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